

## GGM 노조 파업에 주주단 “사업장 폐쇄”

현대차 등 37개사 주주사들 “투자금 회수” 경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출범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GGM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주단이 투자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 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주단의 경고는 우선 ‘엄포성’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37개 주주사들은 2019년 GGM 설립을 위해 2300여억원을 출자했다. 주주사들은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임금·근로여건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출범 당시 작성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투자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GGM 출범 3년여만인 지난해 일부 직원이 노조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계약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GGM에 투자를 결심한 기업들은 설립 5년 동안 주주 배당 한 푼 받지 못한 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GGM 주주 37개 사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면 투자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단은 특히 GGM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향해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설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당한 요구와 무책임한 파업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주단은 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총 37개 투자자를 모집해 GGM을 설립했다”며 “GGM 전체 자본의 65%가 지역민들이 투자한 광주시민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단은 이날 “GGM이 캐스퍼 전기차 생산 확대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만대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1000명의 지역 청년을 더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GGM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물거품이 됐다”고도 했다.

주주단은 “GGM 노조는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요구이며, 경영진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단은 노동조합과 경영진, 광주시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에도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주주단은 “노동조합은 무책임한 파업으로 GGM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및 이행 감독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주단은 아울러 광주시민들에게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광주시민의 약속”이라며 “GGM이 투자자와 기업에게 신뢰를 얻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사 거부하고 법원 결정엔 “불법”... 구속 기로에서도 여론몰이만  
여야, 내란특검법 합의점 찾아 계엄·탄핵 사태 신속하게 수습해야

‘12·3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 갈라치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붙잡혀 간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그동안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 등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까지 무시하며 자신의 절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어 서다.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과정에서도 영상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3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는 단 한 줄도 없이 ‘거대 야당 탓’,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는 지적은 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지 세력을 선동해 한 차례 법 집행을 막은 데 이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과 조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는 ‘뒷전’이었다는 반성은 없었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영장 집행까지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사실상 입법·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지난 15일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돌입할 방침이다.

대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진영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선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야 협치로 실마리 찾는 게 급선무=여야는 ‘내란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

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여당에게 관련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도 극우 진영이 형성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신속한 사태 수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힘 있는 해결’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탓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국정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신, ‘협치’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 사상 첫 체포 상태에서 현재 심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상태에서 탄핵심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 대상과 증거 채택이 일단락됐다.

증인으로는 계엄에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종근, 여인형, 조지호, 이진우 등 고위 군·경 관계자 등이 채택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

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두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참석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 등이 불출석 사유였지만,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 헌재가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에서 탄핵심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애초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로 잡았으나, 다음 달 6일, 11일, 13일을 추가 지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